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 하락세... 시민 체감은 '글썸'

30년만 '유가 상한제' 중동발 악재에 '긴급처방' 광주 주유소 평균가 휘발유 26원·경유 32원 하락 가격편차 여전...재고물량 소진까지 시간 걸릴듯

정부가 30년 만에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체감도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주유소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1당 181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2원가량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2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1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

값 상승 압력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장치로 유가 상한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로 광주지역 기름값 역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유소별 가격 차이는 여전히 컸다. 이날 기준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1당 1700원 중반대, 경유는 1700원 후반대 수준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1800원 후반대 가격을 유지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찾은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 주유기 전광판에는 휘발유 1당 1750원, 경유 1740원이라는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격

인하 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다. 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서영씨(39)는 "정부가 기름값을 잡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직은 몇십원 정도 내려간 수준"이라며 "한 번 주유하면 5만~7만원씩 들어가는 데 이 정도 차이로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600원대도 비싸다는 생각으로 주유를 했었는데 요즘엔 내린 가격이 1700원대라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기름값이싼 주유소를 찾아 남구에서 북구까지 찾아왔다는 박성환씨(52)도 "최근 물가가 워낙 올라 기름값 부담이 큰데 가격이 이 정도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다"며 "적어도 몇 백 원은 떨어져야 체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가격 반영 속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구조상 소비자 가격에 즉각적인 큰 폭의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47)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이미 확보해 둔 재고 물량이 남아 있으면 즉각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며 "재고가 소진되고 새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가격 인하가 조금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면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유소 판매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1700원대부터 1900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된 경기 시흥 지역의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 지도를 공유하며 "유류값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느냐"고 묻는 한편, 최고가격제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받는 업체에 대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3일 순천 정원위케어이전센터에서 노관규 순천시장,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과 특급호텔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순천에 'BBQ 복합관광단지' 들어선다

2031년까지 호텔·컨벤션·위터파크 등 체류형 인프라 도·순천시·제너시스비비큐 투자협약...2000개 일자리

전남 순천에 호텔과 컨벤션, 위터파크 등을 갖춘 대형 관광복합단지 들어선다. 민간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최근 순천 정원위케어이전센터에서 ㈜제너시스비비큐와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노관규 순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시스비비큐는 2031년까지 순천시 연향·오전·해룡 일원에 관광·레저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500~100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 위터파크, 상업시설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전남 동부권 관광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며 숙박과 외식, 유통 등 지역 서비스 산업 전반에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자원과 복합 관광시설을 연계하면 기존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 구조를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단지 운영 과정에서 약 2000개의 신규 일자

리 창출도 예상된다.

복합 관광단지는 동천 등 주변 자연 환경과 연계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시 정원 라이딩, 먹거리 페스타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관광객 유인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남해안 관광벨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글로벌 외식 기업 제너시스비비큐의 대규모 투자가 순천시 남도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순천시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8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에 대해서다.

제출된 의견에 관해서는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받으며,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를(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를(69%)을 적용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60억 융자 지원

관광업체 33곳 선정...1% 저금리 시설 개선·경영안정 기대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관광업체 33개소에 총 6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관광업체의 경영안정과 노후 관광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관광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지원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4개 업체에 약 39억원, 관광업체의 경영안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19개 업체에 약 21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전남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대형 관광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수요 증가에 예상되는 만큼 관광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관광객 수용 기반을 선제

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섬 방문의 해 등 굵직한 관광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며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전남 관광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0억원을 조성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총 186개 관광업체에 632억원을 지원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인축 최대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6억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낮 산업용 전기요금 내린다...최대 16.9원

야간은 kWh당 5.1원 인상 한전, 내달 16일부터 반영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한다.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중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용(을)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편안의 골자는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을 높여 낮 시간대로의 전력 소비 유인이다.

이에 따라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겨울은 최대부하 시간대가 다른 계절과 다른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4~7시이다.

겨울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라간다.

산업용(을)은 '공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97%(사업장 기준 3만8000여개)가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1.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9월까지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용 요금에도 다음달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이 이뤄진다. 또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됐는데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도, 소상공인 성장 기반 마련...상표 출원 지원

전통시장·상점이 포함...등록 건당 최대 53만원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소상공인 IP(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 등이 보유한 상호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당 최대 53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약 200건의 상표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사 상표 사용으로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



크 누리집(www.jn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이나 상담은 전화(061-242-859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상표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브랜드를 선점하고 보호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